

# 주간 통일정세

2017-11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3.11	北김정은, 백두산건축연구원 시찰...“건설 대번영기 열어”(연합뉴스)
	3.12	김정은, 618건설돌격대 지원자들에 감사(연합뉴스)
		김정은, 김재은 빈소에 화환 송부(연합뉴스)
	3.13	北, 주민들에 작년보다 강도 높은 ‘속도전’ 강요(연합뉴스)
3.16	여명거리 시찰 나선 北김정은...북부에 페인트 범벅(연합뉴스)	
	北매체들, 김일성 생일 한 달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경제	3.14	“중국 훈춘, 北 유람선 관광 전용 부두 건설”(연합뉴스)
		평양국제상품전람회 5월 개최...제재품목 ‘석탄’ 포함(연합뉴스)
		“폴란드·루마니아, 北대사관에 불법입대사업 중단 요구”(연합뉴스)
		“북한서 중국산 미중고컴퓨터 46만~57만원에 판매”(연합뉴스)
	3.15	“말레이, 비자기한 초과 불법체류 北근로자 50명 추방 결정”(연합뉴스)
		미국이 제제한 北은행들, 아직도 국제금융거래망 이용(연합뉴스)
		“올해 北 외화수입, 2014년 대비 20% 감소 예상”(연합뉴스)
3.16	유엔 “북한 1~2월 석탄 수출, 연간 상한량의 35% 해당”(연합뉴스)	
3.17	北 국제금융 결제망서 완전 퇴출...“핵개발·미사일 우려”(연합뉴스)	
	“공해 머물던 北선박 10척, 일제히 中 석탄항 입항”(연합뉴스)	
사회 문화	3.11	北 “10월 인구일제조사 실시”...세번째 인구센서스(연합뉴스)
	3.12	“北, 외국 주재원에 ‘김정남 살해 보도 보지마라’ 지시”(연합뉴스)
		“北, 휴대전화 사용 단속...김정남 암살 소식 차단 목적”(연합뉴스)
	3.14	김일성 생일까지 한달...“北 여명거리 마무리 단계”(연합뉴스)
		각국 주재 북한 공관, 광명성절 경축행사 개최(연합뉴스)
	3.15	“北 김정은 다녀간 곳마다 공사판...공포통치 탓”(연합뉴스)
		北화물선, 中유조선과 충돌해 침몰...선원 모두 구조(연합뉴스)
		“北서 南가전제품 인기...삼성엔 ‘썩’, LG는 ‘쥬’로 통칭”(연합뉴스)
3.16	“北 김일성종합대, 금연 돕는 ‘니코틴 반창고’ 개발”(연합뉴스)	
	“北, 美서 개최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대회 불참 통보”(연합뉴스)	
	“전투동원태세 발령에도 北주민 전쟁 위기감 전혀 없어”(연합뉴스)	
		“北 공식 시장 수 436개...하루 이용객 100만명대”(연합뉴스)

외교 국방		대북매체 “北주민, 朴탄핵에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선망”(연합뉴스)
	3.17	“北, ‘빨치산 회상기’ 재배포·학습강요”…우상화 활용(연합뉴스) “北 장마당 식량가격 하락세 반전…물기불안은 여전”(연합뉴스)
	3.11	北, 대선국면서 도발하나…“사상 최대 핵실험 동향”(연합뉴스) 北매체, ‘김정은 비이성적’ 美유엔대사 맹비난(연합뉴스)
	3.12	말레이시아 총리 “북한, 말레이 국민 우롱말라” 경고(연합뉴스) 北-말레이, ‘김정남 암살사건’ 공식회담 임박…시신인도 최대관심(연합뉴스) 말레이 ‘김정은도 유가족 신분인정’…김정남 시신 北에 넘겨지나(연합뉴스) 러 “대북제재 결의 충실히 이행”…유엔 제출 보고서에 강조(연합뉴스)
	3.14	김영남, 시리아 대통령에 테러 관련 위로 전문(연합뉴스) 말레이 부총리 “김정남 시신 방부처리했다”…北에 인도 염두(연합뉴스) 北매체, ‘한미훈련 안보리 제소’ 외면받자 유엔개혁 요구(연합뉴스) 미군, 국내서 지하갱도 적 소탕훈련…北지도부 제거 연습(연합뉴스) 北 “美 전략자산 우리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 위협(연합뉴스)
	3.15	“北주민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39개로 줄어”(연합뉴스) 美, 北에 “워비어 즉각 석방하라” 촉구…北여행자제 재차 당부(연합뉴스) 북미 ‘트랙 1.5’ 대화 물밑접촉 활발…“현직끼리 만남도 시급”(연합뉴스) 北, 한미훈련에 “트럼프 행정부, 제2의 6·25전쟁 노려” 비난(연합뉴스)
	3.16	北 “미국식 민주주의, 악육강식 생존법칙에 기반” 비난(연합뉴스) “北 추가 핵실험폭발력 수십kt 예상…282kt은 지하굴 제어력”(연합뉴스) 인터폴, 김정남 살해혐의 북한 용의자 4명 ‘적색수배’(연합뉴스) 말레이 총리 “北과 공식협상 시작 안했다…때되면 할 것”(연합뉴스) “북한 연루 혐의 해킹그룹 이번엔 31개국 104개 기관 공격”(연합뉴스) 말레이, 北에 김정남 시신인도 절차밟는 듯…“유가족, 처리 위임”(연합뉴스) 말레이 부총리 “유가족 동의 없으면 北에 시신 인도 불가”(연합뉴스) 러시아 이민당국 대표단 방북…北 노동자 논의 관심(연합뉴스) 美 강경 대북접근 vs 北 “美 대북정책 바뀌라” vs 中 “대화해야”(연합뉴스) “중국군, 북 핵실험 대비 집경에 병력 추가 배치”(연합뉴스)
	3.17	“6일 발사한 北미사일 4발 아닌 5발 가능성”(연합뉴스) 北 “안보리 제재 적법성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재차 주장(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 대북정책 어떤 옵션도 배제 안해”(연합뉴스) 美국무부 “14년간 北에 13억달러 지원했지만 문제해결 담보”(연합뉴스)

## &lt;김정은 공개활동 동향&gt;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3.11	백두산건축연구원 공개활동	마원춘	
3.16	여명거리 시찰	김정관, 마원춘, 황병서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3. 11.

##### ■ 北김정은, 백두산건축연구원 시찰...“건설 대번영기 열어”(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설계기관인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정은은 최근 개건 공사를 마친 연구원을 시찰한 자리에서 "연구원의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지난 기간 중요 대상 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당에서 맡겨준 설계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 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였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지난해 7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연구원을 다시 찾은 김정은은 "백두산건축연구원은 실력 있고 믿음이 가는 설계집단, 우리나라 건축설계 단위의 본보기, 기준"이라고 발언함.

2017. 3. 12.

##### ■ 김정은, 618건설돌격대 지원자들에 감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함.

##### ■ 김정은, 김재은 빈소에 화환 송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였던 김재은의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함.

2017. 3. 16.

##### ■ 여명거리 시찰 나선 北김정은...북부에 페인트 범벅(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6일 오후 김 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시내 여명거리 건설현장을 방문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70여 장을 공개함.

-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 건물 복도에서 창밖을 가리키면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 국장과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사진이 포함됨.
- 김 위원장은 이른 새벽에 여명거리 건설현장에 도착해 "낮에 볼 때도 희한했는데 어둠 속에서 보니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발언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3. 14.

##### ■ 최룡해, 평양 여명거리 건설 현장 시찰(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 여명거리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다. 공식행사

2017. 3. 12.

##### ■ 황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군중대회 개최(연합뉴스)

- '강원도정신 창조자'들이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황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군중대회가 지난 10일과 11일에 각각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 제32차 함경남도 과학기술축전 개최(연합뉴스)

- 제32차 함경남도 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함.

2017. 3. 14

##### ■ 제32차 내각 철도성 과학기술축전 개막식 개최(연합뉴스)

- 제32차 내각 철도성 과학기술축전 개막식이 14일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 북한 외무성,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방북 31주년 맞이 친선모임 개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에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북한 방문 31주년을

맞아 신흥철 외무성 부상과 헤수스 텔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북한 주재 쿠바 대사,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모임이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3. 13.

### ■ 北, 주민들에 작년보다 강도 높은 '속도전' 강요(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모두 다 만리마선구자의 긍지 드높이 승리의 대회장에 땀뿡이 들어서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천만군민의 영웅적 진군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그러면서 "현실은 전체 인민이 천리마대진군 때보다도, 지난해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 때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당 정책관철을 위한 총결사전을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2017. 3. 16.

### ■ 北매체들, 김일성 생일 한달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축 선전화(포스터)들이 나왔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존경하고 사모함)의 마음을 안고 태양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 인류 공동의 경사로 경축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념원(염원)이 선전화들에 반영돼 있다"고 보도함.
- 이 매체는 "선전화들은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고매한 덕망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역사) 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한다"고 보도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2017. 3. 14.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5월 개최…제재품목 ‘석탄’ 포함(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조해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북한이 석탄을 비롯한 제품 등을 내세워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임.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14일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2017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함.
- 북한이 공개한 전시상품 명단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의 '수출 상한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석탄을 포함시켰음.

### 다. 경제 상황

2017. 3. 14.

- **“북한서 중국산 美중고컴퓨터 46만~57만원에 판매”(연합뉴스)**

- 북한에서 중국산 미국 상표의 중고컴퓨터가 대당 한화 약 46만~5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함.
- 중국 국경지대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 무역기관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미국 델(DELL)이나 HP 상표가 붙은 중고컴퓨터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북한에 가지고 가서는 컴퓨터 판매상들에게 대당 300달러에 넘긴다"고 말함.
- RFA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결의안을 발표하며 제재 대상 목록에 컴퓨터를 포함했지만, 중고컴퓨터 반입에 대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3. 14.

## ■ “중국 훈춘, 北 유람선 관광 전용 부두 건설”(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시가 북한 관광용 유람선 전용 부두를 짓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훈춘시는 300만 달러(약 3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광천(防川) 부두에 유람선 전용 부두와 연합검사 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최근 발표함.
- 중국 측은 유람선 관광객을 위해 입출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 “폴란드·루마니아, 北대사관에 불법임대사업 중단 요구”(연합뉴스)

-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는 두 나라 정부가 이런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VOA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달 28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의 외교 부지와 관련한 공문을 북한 외교관들에게 보냈다. 북한이 유럽연합 법에 위배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보고했음.
-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은 날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대사관 측에 관련 제한 사항들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음.

## ■ “말레이, 비자기한 초과 불법체류 北근로자 50명 추방 결정”(연합뉴스)

-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14일 비자 기한이 초과한 사라왁주(州)의 북한 근로자들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매체들이 14일 보도함.
- 앞서 사라왁주 이민국과 해양경찰은 지난 8일 사라왁주 쿠알라타타우 지역의 한 다리 공사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140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함.
- 이들은 유효한 취업허가증(워킹퍼밋) 없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체류하며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함.

2017. 3. 15.

■ **미국이 제제한 北은행들, 아직도 국제금융거래망 이용(연합뉴스)**

-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의 은행들이 여전히 국제금융거래망에 남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신문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소식통을 인용해 4개 이상의 북한 은행이 아직 SWIFT에 잔류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아직 SWIFT에 잔류하는 북한의 금융기관은 안보리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제재대상인 은행들임.

■ **“올해 北 외화수입, 2014년 대비 20% 감소 예상”(연합뉴스)**

- VOA는 자체 추산을 근거로 북한이 2014년 최소 36억 달러(4조1천400억여원)에서 최대 4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렸지만, 제재로 인해 올해는 8억 달러가량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같이 보도함.
- 수출 분야에서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류의 수출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좁아지면서 수출액이 올해 약 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남북 경협 의 경우 한국 정부의 2010년 5·24 조치로 대남 수출이 막히고,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수입원이 모두 차단됐다고 VOA는 보도함.
- 이밖에 북한의 해외 조형물 설치 사업이 안보리 제재로 중단되는 등 외화 수입이 전반적으로 정체·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VOA는 보도함.

2017. 3. 16.

■ **유엔 “북한 1~2월 석탄 수출, 연간 상한량의 35% 해당”(연합뉴스)**

- 올해 1~2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유엔이 설정한 대북 제재 연간 상한량의 35%에 해당한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함.
-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달 21일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다"고 발언함.
- 유엔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으로 북한은 7억 달러(약 7천913억원) 가량의 수입이 감소하는 타격을 입을 것이란 추정이 나옴.

2017. 3. 17.

■ **北 국제금융 결제망서 완전 퇴출…“핵개발·미사일 우려”(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스위프트)에서 완전히 퇴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런던발로 보도함.
- 스위프트 측은 성명을 통해 "네트워크에 남아있던 4개 북한 은행들이 회원 기준을 더는 준수하지 않아 스위프트의 금융 메시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려해 이 사실을 벨기에와 유럽연합(EU)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스위프트가 EU 제재대상이 아닌 국가의 은행들을 퇴출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발언함.

■ **“공해 머물던 北선박 10척, 일제히 中 석탄항 입항”(연합뉴스)**

-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 이후 3주간 공해 상에 머물던 북한 선박 10척이 석탄을 하역하는 중국 항구에 일제히 입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이들 선박은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룡커우 항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공해 상에 머물다 약 3주 만에 같은 날 일제히 입항했다고 VOA는 보도함.
- 현재로써는 이들 선박의 석탄 적재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VOA가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로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이 머문 지점 인근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발견되었음.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3. 15.

■ **“北, ‘빨치산 회상기’ 재배포·학습강요”…우상화 활용(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게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3월 초부터 당과 각 근로 단체 조직들에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배포되고 있다"며 "배포와 함께 주민들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김 씨 일가 우상화에 걸림돌로 여겨져 외면당하던 회상기를 왜곡해 이제는 김정은의 '백두혈통'(김일성 일가를 지칭하는 북한식 표현) 정당화에 악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배포된 회상기 내용이 과거 김일성 회고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 진실 논쟁도 치열하다"고 덧붙임.

## 나. 시장관련

2017. 3. 15.

### ■ “北서 南가전제품 인기…삼성은 ‘쑹’, LG는 ‘쥘로 통칭’(연합뉴스)

- 한국산 가전제품이 북한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어까지 등장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15일 보도함.
- 북한 당국이 지난해 5월 제7차 노동당대회 참가자들에게 LED TV를 선물로 나눠주면서 품질과 브랜드에 관심을 두는 주민들이 늘었고, 태양광판으로 전자 제품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품구매 욕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함.
- 소식통은 또 "대학생은 물론 일반 초·고급 중학생들 속에서 노트북 구매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산은 부의 상징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산 제품은 가격이 낮은(저렴한) 대신 잔고장이 많지만 삼성, LG는 품질이 확실하다는 점이 아이들에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보도함.

2017. 3. 16.

### ■ “北 공식 시장 수 436개…하루 이용객 100만명대”(연합뉴스)

- RFA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시장이 436개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하루 시장 이용객은 평균 100만~180만 명으로 추산됨.
- 북한 시장은 계속 늘거나 확장·보수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에서 그 현상이 더 뚜렷하다고 RFA는 보도함.

2017. 3. 17.

■ **“北 장마당 식량가격 하락세 반전…물가불안은 여전”(연합뉴스)**

- 북한 장마당에서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식량 가격이 작황 호조와 환율 효과의 영향으로 내리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음력설 이후 장마당들에서 kg당 북한돈 2천원까지 올랐던 통강냉이의 가격은 현재 1천300원선에서 멈췄다"며 "입쌀(백미) 역시 kg당 북한 돈 5천500원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질이 좋은 것은 4천300원, 질이 나쁜 쌀은 4천원"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식량 가격이 하락한 기본 요인은 무엇보다 지난해 농사가 잘된 데 있다"며 "여기에 올해 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국 인민폐 대 우리(북한) 돈 환율도 식량 가격 하락에 큰 몫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7. 3. 12.

■ **“北, 외국 주재원에 ‘김정남 살해 보도 보지마라’ 지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외국 주재 무역상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김정남 살해 사건 기사를 보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함.
- 신문은 동남아 등지의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사건 직후에도 이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진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김정남 살해 정보가 북한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아울러 신문은 "김정남이 김일성 주석의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살해지령을 내렸다는 정보가 북한에 확산하면 김 위원장의 이미지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北, 휴대전화 사용 단속…김정남 암살 소식 차단 목적”(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김정남 암살 소식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북한 내부사정을 취재하는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는 RFA에 "지난 6일 인민반과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 모여 (한 접경지역에서) '주민정치사업'을 했다"며 "주민정치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고 설명함. 주민강연

회에 참석한 취재협력자는 아시아프레스에 "회의에서는 외국과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또는 글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지수와 신고가 강조됐다"고 밝힘.

## 라. 사회 동향

2017. 3. 11.

### ■ 北 “10월 인구일제조사 실시”…세번째 인구센서스(연합뉴스)

- 북한 중앙통계국 원혁 부국장은 11일 자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1일 인구일제조사를 위한 전국적인 시범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있는 조건에서 각급 인민위원회들과 인민보안기관들에서는 그 준비사업에 힘을 넣어 8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발언함.
- 원혁 부국장은 인구조사 결과를 주민생활 향상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면서 "학생들에게 안겨줄 교복생산 계획, 주민세대들에 대한 빨감과 먹는 물, 전기보장계획, 상품 및 식료품 공급 계획 등은 모두 인구일제조사에서 장악된 통계수자들을 리용하여 작성되게 된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음.

2017. 3. 14.

### ■ 김일성 생일까지 한달…“北 여명거리 마무리 단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까지 여명거리 건설을 완공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뜻깊은 태양절 전으로 려명거리(여명거리)를 기어이 완공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미더운 건설자들이 승리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총돌격, 총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려명거리 건설이 단순한 거리 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치열한)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려명거리 건설 지휘부 일군(일꾼)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기숙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고 있다"고 선전함.

2017. 3. 15.

■ **北화물선, 中유조선과 충돌해 침몰…선원 모두 구조(연합뉴스)**

- 15일 영국 로이터 통신과 미국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9일 오전 4시께 중국 장쑤(江蘇)성 련윈강(連雲港) 항 인근에서 8천500t급 북한 선박 금산호와 중국 유조선이 충돌했다고 발표함.
- 금산호는 사고 2시간 뒤인 오전 6시께 침몰했으나 선원 27명은 모두 구조됐다고 중국 교통부는 발표함.

■ **“北 김일성종합대, 금연 돕는 ‘니코틴 반창고’ 개발”(연합뉴스)**

- 북한 김일성종합대 평양의학대학 약학부가 금연을 돕는 '니코틴 반창고(패치)'를 개발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5일 보도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중전의 금연껌이나 금연알약과 같이 씹는 방법이 아니라 피부에 반창고를 붙이는 방법으로 금연을 보조적으로 추동한다"며 "피부를 통하여 니코틴 투여량을 과학적으로 조절하기 쉬우므로 금연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함.
- 북한은 전국 각 지역에 금연연구보급기지를 설립하고, 관영 매체들을 앞세워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음.

2017. 3. 16.

■ **“北, 美서 개최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대회 불참 통보”(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5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1차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회 주최 측을 인용, 16일 보도함.
- 북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평양에서 열린 지역 예선대회에 전국 28개 대학에서 선발된 12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이 각각 1~3위를 차지했지만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컴퓨터협회에 해당 예선대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RFA는 보도함.

■ **“전투동원태세 발령에도 北주민 전쟁 위기감 전혀 없어”(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비해 '전투 동원

- 태세'를 발령했지만, 주민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급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전투 동원 태세 명령으로 군인들의 출장과 이동이 금지됐다"면서도 "평소보다 긴장한 분위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함.

■ **대북매체 “北주민, 淸탄핵에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선망’”(연합뉴스)**

- 데일리NK는 16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탄핵 사건 이후 남조선(남한)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남한 인민들이 대단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소식통은 "최근 공장 기업소들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의 실태가 이번에 낱알이 밝혀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3. 11.

■ **北매체, ‘김정은 비이성적’ 美유엔대사 맹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이성적’이라고 묘사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정치 매춘부"라고 표현함.
- 조선중앙통신은 '요사스러운 정치 창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헤일리의 발언을 두고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감히 건드렸다"면서 "헤일리의 이번 망발은 사물현상에 대한 분석 판단력도 없고 초보적인 어휘구사력조차 없는 정치미숙아, 외교미숙아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함.
- 헤일리 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김정은을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함.

2017. 3. 14.

■ **미군, 국내서 지하갱도 적 소탕훈련…北지도부 제거 연습(연합뉴스)**

- 1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 병력은 지난 8일 경기도

- 의정부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에서 적 갱도 소탕훈련을 함.
- 이들은 북한 지하갱도를 모방한 시설에 들어가 곳곳에 숨은 가상의 적을 소탕하는 기술을 숙달한 것으로 알려짐.
  - 주한미군은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군 지하갱도를 지도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2007년부터는 한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하갱도 작전을 교육하는 'UGF'(Underground Facility, 지하시설)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음.

#### ■ 北 “美 전략자산 우리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 위협(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이 한미훈련에 참가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소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때에 놈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제의 모든 전략자산은 우리 군대의 강위력한 초정밀 타격수단들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의 초정밀타격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에서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보도함.
- 이어 "우리의 핵 보유에 대처하기 위한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연습이라고 떠드는 것은 저들의 침략야망을 합리화해보려는 술책"이라며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함.

2017. 3. 15.

#### ■ 美, 北에 “웬비어 즉각 석방하라” 촉구…北여행자제 재차 당부(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에 미국인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웬비어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함.
- 웬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같은 해 3월 16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음.
-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6일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 달 만에 갱신해 자국민들에게 '심각한 체포 및 장기 구금 위험'을 이유로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

#### ■ 북미 ‘트랙 1.5’ 대화 물밑접촉 활발…“현직끼리 만남도 시급”(연합뉴스)

- 미국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북미간 '트랙 1.5'(반민반관) 대화를 위한 물밑접촉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북핵 6자회담 전 차석대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후 이르면 오는 4월 말, 늦어도 5월 안에 북미 비공식대화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아울러 이날 RFA가 밝힌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하와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랠프 코사 회장도 제3국에서 북미 반관반민 접촉을 추진 중임.

■ **北, 한미훈련에 “트럼프 행정부, 제2의 6·25전쟁 노려” 비난(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2의 6·25 전쟁 도발'을 피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담하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한미의 이번 독수리(FE) 훈련과 키리졸브(KR) 연습은 "사상 최대 최악의 반(反)공화국 압살 소동"이라며 이같이 보도함.
- 노동신문은 같은 날 '평화과괴자들의 정체는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도 이번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침수작전'을 포함한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내용들로 일관되고 있다"고 비난함.

2017. 3. 16.

■ **北 “미국식 민주주의, 악육강식 생존법칙에 기반” 비난(연합뉴스)**

- 북한 국제문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A4용지 12쪽 분량의 '2016년 미국인권백서'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가 "악육강식의 생존법칙, 극단한 개인 이기주의를 생리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백서는 우선 미국의 정치제도는 반인권적 정체라며 "(미국에는) 권력을 쥐려는 야심가들, 특권층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무하는 반인민적, 반인권적인 본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비난함.
- "미국이 제아무리 '보편적인 인권존중'이니 '연례보고서' 발표이니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놓고 시야 비야 하여도 자국 내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절대로 가리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함.

■ **美 강경 대북접근 vs 北 “美 대북정책 바뀌라” vs 中 “대화해야”(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명확해졌다"며 "이에 대해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발언함.
-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북한과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발언함
-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주중 북한대사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미국이 40년간 침략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2017. 3. 17.

■ **백악관 “트럼프, 대북정책 어떤 옵션도 배제 안해”(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것(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분명히 밝혀 온 것"이라고 발언함.
-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적 해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는데 그럼 군사력 동원이나 다른 강제적 조치만을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틸러슨 장관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명확해졌다"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외교나 다른 부분에서 노력해 왔지만 실패한 접근법이었다"고 발언함.

■ **미국무부 “14년간 北에 13억달러 지원했지만 문제해결 답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 동안 북한에 약 13억달러(약 1조5천억원)를 지원했다고 밝힘.
-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가운데 50%가 식량 지원, 40%가 에너지 지원이었다"고 설명함.
- 토너 대변인대행은 "북한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6자회담과

같은 기제가 오랫동안 의도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고려할 때 제재 관련 현행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나. 북·중 관계

2017. 3. 16.

### ■ “중국군, 북 핵실험 대비 접경에 병력 추가 배치”(연합뉴스)

- 북한의 6차 핵실험 실시에 대비해 중국군이 북중접경 지역에 병력 3천 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홍콩의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 3천 명이 지난 13일부터 철도, 차량을 이용해 북한과의 국경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함.
- 이 단체는 "중국 정부가 북한 인접 지역에 설치한 4개의 방사능 관련 환경감측소를 24시간 가동해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한 감시체제에 들어갔다"고 주장함.

## 다. 북·일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라. 북·러 관계

2017. 3. 12.

### ■ 러 “대북제재 결의 충실히 이행”…유엔 제출 보고서에 강조(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비롯한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는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의무를 비롯한 대북 제재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타스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함.

2017. 3. 16.

### ■ 러 “대북제재 결의 충실히 이행”…유엔 제출 보고서에 강조(연합뉴스)

- 러시아 이민당국 관계자들이 16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드미트리 제미젠코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내무성(내무부) 이민문제총국 대표단이 1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짧게 밝힘.
- 대표단 구성원들은 이날 '북한-러시아 경제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8주년을 기념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개최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3. 12.

### ■ 말레이시아 총리 “북한, 말레이 국민 우롱말라” 경고(연합뉴스)

-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12일 북한이 말레이시아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현지 중문매체 성주일보(星洲日報)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나집 총리는 이날 클란탄 주의 병원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9명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발언함.

### ■ 北-말레이, ‘김정남 암살사건’ 공식회담 임박…시신인도 최대관심(연합뉴스)

- 12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북한 내 억류자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취재진에 "북한이 회담시작을 원한다"며 "수일 내에 북측과 공식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아니파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시신을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북한) 정부든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시신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 말레이 ‘김정은도 유가족 신분인정’…김정남 시신 北에 넘겨지나(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언제든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함.
-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남의 신원 확인은 사실상 북한 측에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받을 권리를 인정한 셈이라고 보도함.
-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시신을 누군가에게 인도할 것이다. 시신을 인도받는 주체는 북한 정부가 될 수도, (김정남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함.

2017. 3. 14.

■ **김영남, 시리아 대통령에 테러 관련 위로 전문(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올드시티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3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함.

■ **말레이 부총리 “김정남 시신 방부처리했다”…北에 인도 염두(연합뉴스)**

-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시신을 방부처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영안실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면 시신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함.

■ **北매체, ‘한미훈련 안보리 제소’ 외면발자 유엔개혁 요구(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게재한 '유엔은 자기의 사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놀아나고 있다"며 안보리를 비판함.
- 논설은 북한이 안보리에 공식 경로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꼭두각시, 패권의 시녀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함.
- 이어 안보리가 더는 미국의 '독판치기'(독단)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유엔의 민주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주장함.

2017. 3. 15.

■ **“北주민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39개로 줄어”(연합뉴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김정남 암살사건 등의 여파로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년 만에 2개국 줄어 총 39개국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국제교류 담당 법률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는 RFA에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2010년 36개국에서 2014년 39개국, 지난해 초 41개국으로 증가세였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대한 비자 혜택을 취소하면서 현재 39개국으로 줄었다"고 밝힘.

-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39개국은 캄보디아와 몽골, 마카오, 이집트,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 등으로 3분의 2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음.

### 2017. 3. 16.

#### ■ 인터폴, 김정남 살해혐의 북한 용의자 4명 '적색수배'(연합뉴스)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 4명을 '적색수배(Red Notice)' 리스트에 올림.
- 인터폴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종길(54), 리지현(32), 리재남(56), 홍송학(32) 등 네 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힘.
-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터폴에 이들 4명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선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기에 이를 밟는 중"이라고 발언함.

#### ■ 말레이 총리 "북과 공식협상 시작 안했다...때되면 할 것"(연합뉴스)

-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16일 북한 억류 자국민 석방과 관련한 북측과의 공식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함.
- 이는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지난 13일부터 공식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의 전날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임.
- 앞서 자히드 부총리는 "지난 13일 (북한과) 사무총장급 공식협상이 시작 됐다"면서 "평양에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함.

#### ■ "북한 연루 혐의 해킹그룹 이번엔 31개국 104개 기관 공격"(연합뉴스)

- 북한과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해킹그룹 '래저러스'(Lazarus)가 이번엔 31개국 1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파상적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만텍이 주장함.
- 시만텍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소프트웨어(멀웨어)가 폴란드에 있는 한 은행의 컴퓨터들에서 가동 중인 것이 발견되면서 드러났음.
- 시만텍은 이번 공격이 래저러스의 소행이라는 증거로 폴란드 은행에서 발견된 멀웨어와 해킹툴에 남겨진 특수한 흔적들이 기존에 래저러스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됐던 여러 해킹 사건에서 밝혀진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4가지 밝혀냈다고 공개함.

■ **말레이, 北에 김정남 시신인도 절차 밟는 듯..“유가족, 처리 위임”(연합뉴스)**

- 말레이시아키니와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 경찰청 부청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들(유가족)이 정부에 (시신 처리를) 맡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함.
- 다만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김정남의 유가족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시신처리를 일임했다는 이브라힘 부청장 발언에 대해 확인을 거부함.
- 문제의 시신이 '김 철'이라는 별도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 유가족 아니면 시신인도를 할 수 없다고 버텨온 말레이 당국이 최근 며칠새 중국·일본 등의 도움을 받아 시신이 김정남이라고 확인한 데 이어 항공 이송용으로 추정되는 방부처리까지 하는 등 북한으로의 인도를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음.

■ **말레이 부총리 “유가족 동의 없으면 北에 시신 인도 불가”(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뉴스포털 말레이시아키니는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16일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대사관은 가족의 동의 없이는 시신을 평양으로 가져가겠다고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자히드 부총리는 또 김정남의 신원확인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가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제3국을 직접 방문해 DNA를 채취했다고도 밝힘.

2017. 3. 17.

■ **北 “안보리 제재 적법성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재차 주장(연합뉴스)**

-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7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유엔의 대조선(대북) 제재결의의 범죄적 진상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백서'에서 이같이 주장함.
- 8천400여 자 분량의 백서는 안보리 제재결의의 기원과 연혁, 이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나열한 뒤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한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범죄적인 문서로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함.
- 이어 "유엔 사무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중략)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3. 11.

### ■ 北, 대선국면서 도발하나…“사상 최대 핵실험 동향”(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9일과 10일(현지시간)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해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갭도 입구에서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매체는 사진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 준비를 큰 규모로 준비 중이며, 핵 폭발력의 규모가 역대 최대인 28만2천t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2017. 3. 16.

### ■ “北 추가 핵실험폭발력 수십kt 예상…282kt은 지하굴 제어력”(연합뉴스)

- 북한의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계속되는 굴 파기 공사와 지질구조 등으로 미뤄 이 굴이 최대 282kt(28만2천t)의 폭발력을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폭발력이 그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은아니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5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 연구원들은 지난 10일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만담산 북쪽 갭도 입구의 수평굴 굴착 작업에 대한 위성사진과 거대한 암반구조 등을 분석, 이 굴이 제어·지탱 가능한 폭발력을 최대 282kt이라고 계산함.
- 38노스는 특히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면서 "북한이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선례를 따른다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폭발력을 늘려나가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십kt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는 한편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2017. 3. 17.

### ■ “6일 발사한 北미사일 4발 아닌 5발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스커드-ER)이 당초 알려진 4발이 아니라 5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미국 인터넷 매체를 인용해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일 공개한 발사 당시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발사한 미사일은 4발이 아니라 5발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 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도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4발 이상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3.11		백악관 "동맹이자 친구인 한국과 지속 협력...대선 면밀 관찰"(연합뉴스)
	3.13	이순진·브룩스 美항모 칼빈슨호 방문..."北도발 응징"(연합뉴스)	
		美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배치...北지도부 제거임무(연합뉴스)	
	3.14	한미일 이지스함,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美위성 정보공유(종합) (연합뉴스)	
	3.15		美 국방차관 물망 룡 "北 미사일 발사에 군사행동 취할 때"(연합뉴스)
	3.17		
			주일 美해병기동군사령관 백령도 방문..."유사시 전력 신속투입"(연합뉴스)
			틸러슨 美국무 첫 방한...블랙호크 타고 DMZ 직행(종합2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3.11		中 관영매체 "탄핵결정 한국, 사드 정책도 변화해야"(연합뉴스)

		사드배치 논란속 중국내 '박근혜' 이미지 1년새 급전직하(연합뉴스)
		"중의 롯데보복은 한국재벌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연합뉴스)
	中 한국공관서 15일부터 한국행비자 직접발급..."건수 급감 전망"(연합뉴스)	
3.12		韓대통령 탄핵 후 中 '사드 집회' 철저 차단...변화 조짐(종합)(연합뉴스)
3.13		부산도 15일부터 中 크루즈관광객 무더기 입항 취소(연합뉴스)
		中, 탐지거리 3천km '중국판 사드 레이더' 설치...韓·日 감시(연합뉴스)
3.15	외교부 "中, 사드 진전에 따라 압박 단계적 강화"(종합)(연합뉴스)	
		리커창 中총리 "한반도 비핵화 견지...대화로 문제 해결해야"(연합뉴스)
3.16		中, 韓관광금지 오늘 발효...'롯데·삼성' 비호감 브랜드 오명(종합)(연합뉴스)

충남도 사드 보복 대응책 마련한다...4개 분야 TF 운영(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3.15		'소환' 日 주한대사 "한국 어떤 정권도 위안부 합의 지켜야"(연합뉴스)
	3.16	한일, 서울서 원자력협의회 첫 개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3.17		주러 北대사 "사드 北보다 러·中 더 겨냥...전략균형 훼손"(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3.12		中상무부장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재앙"(연합뉴스)
	3.15		WSJ "美, 북한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컨더리 제재도 고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3.15		日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지지" 킬러 슌 美국무에 표명 예정(종합)(연합뉴스)
	3.17	美 강경 대북접근 vs 北 "美 대북정책 바뀌라" vs 中 "대화해야"(종합)(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3.13		크렘린궁 "미, 러시아 악마 취급해...관계개선 약속 지켜라"(종합)(연합뉴스)
	3.16	美정부, '야후 해킹 혐의' 러시아 정보원 등 4명 기소(연합뉴스)	
	3.17		러, 미국무 대북 강경모드 주장에...긴장완화 노력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3.16	中 외교부 "日 남중국해 군사적 개입 안돼" 경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3.13	중국, 러·우크라 갈등 활용 무기·군사기술 도입 박차(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3.17		러, "일본과 공동 경제활동해도 쿠릴열도 법적지위는 불변"(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3. 11.

##### ■ 백악관 "동맹이자 친구인 한국과 지속 협력...대선 면밀 관찰"(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다가올 한국 대선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밝힘.
- 스피커서 대변인은 "한국이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한국은 아태지역의 동맹이자 친구다. 이번 사안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 진전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이슈"라고 덧붙임.

2017. 3. 13.

##### ■ 이순진·브룩스 美항모 칼빈슨호 방문...“北도발 응징”(연합뉴스)

-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독수리훈련에 참가 중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올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천명함.
- 이 자리에서 이순진 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현 안보 상황에서 항모강습단의 독수리훈련 참가는 미 전략자산이 언제라도 한반도에 전개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오판하여 도발을 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 美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배치...北지도부 제거임무(연합뉴스)

- 미군이 최신행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을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 관계자는 13일 "미 육군이 미 공군 및 한국군과 협의를 거쳐 '그레이 이글'을 운용하는 중대급 병력을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힘.
- 군산기지에 배치될 그레이 이글은 최전방 지역을 비롯한 한국 상공을 비행하며

- 북한군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북한 상공에 침투해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공중에서 타격해 제거하는 임무에도 동원될 수 있음.
- 주한미군은 당초 유사시에 그레이 이글을 한반도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상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2017. 3. 14.

#### ■ 한미일 이지스함,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美위성 정보공유(종합) (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이 14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추적하는 미사일경보훈련(Missile Warning Exercise)을 시작함.
-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커티스 월버함, 일본 해상자위대 키리시마함 등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구축함 3척이 투입되어 세종대왕함은 한국 해역에서, 커티스 월버함과 키리시마함은 일본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해군은 "훈련은 실제 표적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북한 탄도탄을 모사(模寫)한 가상의 모의 표적을 각국 이지스구축함이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함.

#### ■ 美 핵항모 칼빈슨호 내일 부산 입항…北에 경고메시지(연합뉴스)

-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오는 15일 한국에 도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함.
-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14일 "미 해군 칼빈슨 항모강습단이 정기적인 한반도 항구 방문의 일환으로 내일 한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칼빈슨 항모강습단과 약 5천500명의 승조원들은 미 7함대 작전 지역에서 정기적인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항모강습단 장병들은 한국 해군 및 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활동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설명함.

#### ■ 美 국방차관 물망 롱 "北 미사일 발사에 군사행동 취할 때"(연합뉴스)

- 트럼프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 물망에 오르는 등 안보 전문가로 급부상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군사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주장함.

- 롱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시에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간에 한 번도 이런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함.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해 그는 "그것은 북한과 한국, 중국에게 우리가 능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사드가 배치돼 운용될 것이라는 점과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한 미사일 요격에 국한된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키기 위해 중국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2017. 3. 15.

■ **트럼프행정부 "오바마 '아시아 중시정책', 공식적으로 종식"(종합)(연합뉴스)**

- 미군 기관지 성조지, 디펜스뉴스 등 미 언론은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아태 지역 전략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전임 정부의 아시아 중시(재균형)란 정책 용어는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그는 티러슨 장관의 3국 순방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아시아 중시정책의 장래에 관한 질문에 " '중시'(pivot) 또는 '재균형'(rebalance)이라는 용어는 전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설명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인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 아시아 중시, 재균형 등을 대체할 용어가 없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임.

■ **주일 美해병기동군사령관 백령도 방문... "유사시 전력 신속투입"(연합뉴스)**

- 일본에 주둔하는 미 3해병기동군 사령관이 15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유사시 미 해병대 전력을 서북도서에 신속히 투입할 뜻을 천명함.
-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로런스 니콜슨 미 3해병기동군 사령관(중장)이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가까운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했다"고 밝힘.
- 이 사령관과 니콜슨 사령관은 NLL 북쪽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6여단 관측소(OP)와 요새화진지 등을 둘러보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함.

2017. 3. 17.

■ **틸러슨 미국무 첫 방한…블랙호크 타고 DMZ 직행(종합2보)(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했으며, 틸러슨 장관은 이충면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영접 나온 한미 관계자들과 악수한 뒤 대기 중이던 블랙호크 헬기(UH-60)를 타고 곧바로 비무장지대(DMZ)로 날아감.
- 틸러슨 장관은 DMZ에서 남북 분단의 현장을 목도한 뒤 오후 서울로 넘어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예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회담 등 일정을 잇달아 소화함.
-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의 회담에 이어 2번째인 윤 장관과 틸러슨 장관의 이번 회담에서는 실전배치가 임박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나. 한·중 관계

2017. 3. 11.

■ **中 관영매체 "탄핵결정 한국, 사드 정책도 변화해야"(연합뉴스)**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1일 '대선 앞둔 한국, 외교 변화 얼마나 클까'라는 사평(社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청산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가 했던 일이 잘못됐다면 이 또한 다시 고려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구시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산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의 최대 작품인 사드를 비롯한 외교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함.
-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하며 "문 대표는 북한 문제에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가 당선되면 한국 외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주장함.

■ **사드배치 논란속 중국내 '박근혜' 이미지 1년새 급전직하(연합뉴스)**

- 중국에서 한때 '파오다제'(朴大姐·박근혜 누님)라는 애칭을 가질 정도로 절정의

- 인기를 누렸던 박 전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을 겪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전해지며 '비아냥과 배척의 대상이 됨.
-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사드와 관련해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견지하다가 전격적으로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을 중국은 자신들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받아들임.
  -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박근혜 시절 중국은 한국을 미국 동북아 군사동맹을 깰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봤고, 박근혜는 자신의 대(對) 중국 영향력을 과신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이런 패착이 박 전 대통령이 가졌던 '중국의 꿈'을 깨뜨리고 말았다"고 말함.

#### ■ “중의 롯데보복은 한국재벌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연합뉴스)

- 중국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보복을 하는 것은 한국의 재벌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현지시각) 보도함.
- 신문은 시드니대학 동북아정치학과의 제임스 킬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한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재벌들이 손익계산을 해본 뒤 자국 정부를 향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특히 국익 관철을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온 중국이 이번에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압박 전술이 아주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으며 미국 외교관 출신인 제재 정책 전문가 피터 해럴은 "중국이 이제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별로 미치는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함.

#### ■ 中 한국공관서 15일부터 한국행비자 직접발급…“건수 급감 전망”(연합뉴스)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여행사들이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하면서 중국 내 재외공관들이 오는 15일부터 개인 관광객(산커·散客)에 대한 비자 발급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비자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11일 동북3성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이 이달 초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고 지역별로도 당국이 여행업계에 이런 방침을 재확인해 관광객이 여행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음.
- 한국비자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재외공관 중 하나인 랴오닝(遼寧)성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은 작년 30만 건 가량의 단체·개인 관광객 비자를 처리했으나 앞으로 개인 신청만 받으면 연말까지 23만건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2017. 3. 12.

#### ■ **韓대통령 탄핵 후 中 '사드 집회' 철저 차단·변화 조짐(종합)(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한 중국 내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반한(反韓), 롯데 불매, 사드 반대를 위한 대중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나섰다 일부 대학에서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 2017. 3. 13.

#### ■ **부산도 15일부터 中 크루즈관광객 무더기 입항 취소(연합뉴스)**

-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금지하기로 한 15일부터 부산에서도 크루즈선들의 무더기 입항취소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산항만공사는 스카이스크루즈사가 4월 6일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14차례의 부산 기항을 모두 취소한다고 공식 통보해왔다고 13일 밝힘.
- 크루즈선과 연관된 선사 대리점을 비롯해 여행사, 전세버스, 통역, 가이드, 식당, 면세점 등은 물론이고 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는 선용품, 급유업 등의 연쇄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여행사들은 직원들의 무급 휴가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이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을 도는 4박 5일짜리 상품이 가장 인기 있다"며 "한국을 기항지에서 빼면 상품 구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배를 빌린 중국 여행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함.

#### ■ **中, 탐지거리 3천km '중국판 사드 레이더' 설치·韓·日 감시(연합뉴스)**

- 테쎬(鐵血)망, 591젠쿱(監控)망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께 네이멍구 지역에 한국과 일본의 수도 방향을 겨냥해 최대 탐지거리가 3천km에 이르는 두번째 '텐보(天波) 초지평선(OTH:Over The Horizon) 탐지 레이더를 설치함.
-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보다 훨씬 길어 한국, 일본 양국의 전역을 커버하게 됨.

- 테세망은 "중국도 최근 선보인 X밴드 조기경보 레이더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 등과 함께 미국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의 국가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전함.

2017. 3. 15.

■ **외교부 "中, 사드 진전에 따라 압박 단계적 강화"(종합)(연합뉴스)**

- 중앙총기 외교부 2차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당당한 대응' 기조 하에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안 차관은 "먼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중국 관계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 **리커창 中총리 "한반도 비핵화 견지...대화로 문제 해결해야"(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5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유엔에서 통과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며 계속해서 뚜렷한 태도로 한반도 문제를 대해왔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 긴장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관련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중국은 각국이 긴장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대화 궤도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며 "상식적으로 누구도 자기 집 문 앞에서 온종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 **中, 韓관광금지 오늘 발효... '롯데·삼성' 비호감 브랜드 오명(종합)(연합뉴스)**

- 롯데 불매 운동으로 시작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 대한 보복이 15일부터 한국 관광 금지로 전면 확대됨.
- 한국 방문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으로 겨냥, 중국 당국은 구두지시로 자국 여행사들에 이날부터 한국관광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민간 기업의 결정으로 위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피하면서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는 '꼼수'를 본격적으로 발효시킴.
  - 앞서 각급 성(省) 정부의 국가여유국은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공지했는데 이날부터 엄격히 적용되며,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 지침 어길시 엄벌 등이 포함됨.

2017. 3. 16.

■ **충남도 사드 보복 대응책 마련한다..‘4개 분야 TF’ 운영(연합뉴스)**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충청도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서 총괄지원·경제통상·문화관광·해운항만 등 4개 분야로 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힘.
- 충남은 TF를 통해 수출 및 관광 시장 다변화 방안을 고민하고, 충남 서산~중국 산둥성(山東省) 룡청(榮成)항로 국제여행객선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임.
- 수출 등 경제 분야에서는 광둥(廣東)성과 구이저우(貴州)성 등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중국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수출 시장 개척으로 중국 의존도를 분산하기로 함.

**다. 한·일 관계**

2017. 3. 15.

■ **‘소환’ 日 주한대사 “한국 어떤 정권도 위안부 합의 지켜야”(연합뉴스)**

-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두달 넘게 일본에 머물고 있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15일 자신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이 위안부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여당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한국에서)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집권해도) 약속(위안부 합의)을 지키도록 호소해갈 것이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 한일합의의 이행을 차기 정권에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함.

-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부산시 등에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신의 귀임 시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음.

### 2017. 3. 16.

#### ■ 한일, 서울서 원자력협의회 첫 개최(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16일 오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양국간 원자력협의회를 개최해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힘.
- 함상욱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이카와 가쓰토시 일본 외무성 균축불확산과학부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의 원자력 이용 현황 및 정책, 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원자력에너지기구(NEA)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함.

## 라. 한·러 관계

### 2017. 3. 17.

#### ■ 주러 북대사 "사드 北보다 러·中 더 겨냥·전략균형 훼손"(연합뉴스)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반도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위적 차원에서 핵전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주러 북한 대사의 브리핑은 이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뒤이은 것임.
- 김 대사는 "사드 체계의 남조선 배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면서 "사드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더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가 역내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한반도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7. 3. 12.

#### ■ 中상무부장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재앙”(연합뉴스)

- 1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미간 경제, 무역협력이 양국에 모두 이롭다면 무역전쟁은 두 나라와 국민들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글로벌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중수출 속도가 중국의 대미수출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6.6%에 그쳤다고 밝힘.
- 한편 중국은 10일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요청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 정부에 촉구함.

2017. 3. 15.

#### ■ WSJ “美, 북한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컨더리 제재도 고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미국과 아시아국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이 늘어나는 데 따라 미국이 중국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힐러슨은 북한이 자행한 일련의 도발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지만 이런 접근법은 중국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민간기업과 무역업자들이 북한의 군사장비 수입과 수출을 돕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약해짐.
-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기업을 활용하거나 위장회사를 설립해 제재를 피해나가는 사례들이 많다. 위장회사들은 재래식 무기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판매하는 창구일 뿐 아니라 군사 장비를 북한으로 들여오는 통로로 이용됨.

## 나. 미·일 관계

2017. 3. 15.

### ■ 日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지지” 틸러슨 미국무에 표명 예정(종합)(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16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각각 회담을 하고 이런 입장을 밝힐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김정은 체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미·일이 연계해 압력을 행사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함.
- 탄도미사일 발사와 맹독성 신경작용제(VX)를 사용한 김정남 살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국제포위망을 구축해 자국민의 납치문제 해결에도 연결하겠다는 의도라고 통신은 설명함.

2017. 3. 17.

### ■ 美 강경 대북접근 vs 北 “美 대북정책 바뀌라” vs 中 “대화해야”(종합)(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명확해졌다"며 "이에 대해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의 위협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문제 대응에 미일, 한미일의 협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북한과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해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함.

## 다. 미·러 관계

2017. 3. 13.

### ■ 크렘린궁 “미, 러시아 악마 취급해…관계개선 약속 지켜라”(종합)(연합뉴스)

- 미국이 대선 개입 주장을 통해 러시아를 '악마' 취급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관계개선 약속을 지키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촉구함.
- 페스코프는 지난해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고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느냐는 물음에 "답은 매우 간단하다. 아니다"라고 말하며, 미 대선에 러시아 개입을 가정하는 사람은 "러시아를 악마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상황을 단순화해 바라보는 자들에 불과하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함.

### 2017. 3. 16.

#### ■ 美정부, '야후 해킹 혐의' 러시아 정보원 등 4명 기소(연합뉴스)

-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14년 포털 야후의 대규모 해킹 사건 용의자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2명과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기소된 4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캐나다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유출된 자료는 이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 규모는 사이버 공격 사상 최대였음.

### 2017. 3. 17.

#### ■ 러, 美국무 대북 강경모드 주장에... "긴장완화 노력해야" (연합뉴스)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강경 모드의 새 대북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이같이 밝힘.
-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대화 없는 대북 압박) 접근법이 잘못됐음은 한반도 지역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 국무장관들과 해당 분야 특별대표 등 여러 미국 대표들에게 이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왔다"고 말함.

## 라. 중·일 관계

### 2017. 3. 16.

#### ■ 中 외교부 "日 남중국해 군사적 개입 안돼" 경고(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남중국해 등지로 3개월간 대형 전함을 파견해 남중국해 갈등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확고한

-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경고하며, "일본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화 대변인은 "일본이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이며 오히려 1937~1945년 사이 중국 침략을 통해 시사(西沙·파라셀·베트남명 호양사)군도와 난사(南沙·스프레틀리)군도를 침탈한 부끄러운 역사를 지녔을 뿐"이라고 비판함.
  - 그는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면서 "일본이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역외 모든 국가에 보내야 한다"고 촉구함.

## 마. 중·러 관계

2017. 3. 13.

### ■ 중국, 러·우크라 갈등 활용 무기·군사기술 도입 박차(연합뉴스)

-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 3년을 맞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도 교류가 끊긴 채 양국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이 틈을 타 양국에서 최신 무기와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군사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러시아는 크림합병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중에 중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배경임.
-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모스크바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가브예프는 "러시아는 기술유출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군사장비와 기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으나 중국을 큰 시장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됐다"고 지적함.

## 바. 일·러 관계

2017. 3. 17.

### ■ 러, "일본과 공동 경제활동해도 쿠릴열도 법적지위는 불변"(연합뉴스)

- 러시아가 18일로 예정된 영유권 분쟁지역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일본과의 첫 공식 협의를 앞두고 공동경제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이들 지역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일본이 애를 태우고 있음.

- NHK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쿠릴열도에서 "러·일 양국의 공동경제활동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러시아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 이는 자국의 법적 입장에 입각해 공동경제활동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측을 미리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11	퀀타나 "北 국제고립 심화로 인권논의 기회 줄어"(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탄압 규탄...책임규명·차별 촉구(연합뉴스)
	3.13	퀀타나, 유엔 HRC에 '북 인권 책임 추궁' 촉구(자유아시아방송)
	3.14	퀀타나 특별보고관 "미국정부, 북한인권 문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미국의 소리)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협조 촉구(미국의 소리)
		유엔北보고관 "중나서야 北인권문제 해결...압력·대화 병행해야"(연합뉴스)
		미 국무부 북한인권 보고서(자유아시아방송)
	3.15	휴먼라이즈워치 "틸러슨 미 국무, 아시아 순방 중 북한인권 문제제기해야"(연합뉴스)
	3.16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유린 규탄 이어져(연합뉴스)
3.17	일·EU,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 새 유엔 결의안 제출(미국의 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3.12	북한이탈주민 위한 재판 안내서 첫 발간(연합뉴스)
	3.13	미 국무부 "탈북 지원 동남아 단체에 보조금"(자유아시아방송)
	3.14	새터민 절반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해"(연합뉴스)
		탈북민 10명 중 7명 태국 통해 입국...하나원 수료생 조사(연합뉴스) 탈북자 "한국은 인권 존중 받는 나라"(자유아시아방송)
	3.15	"中 공안, 탈북민 돕던 한국인 목사 2명 긴급체포"(연합뉴스)
홍용표 "北에 있는 국군포로 귀환위해 더 노력할 것"(연합뉴스)		
대북지원	3.15	미 농무부 "대북제재 강화, 식량지원에도 영향"(미국의 소리)
	3.17	국무부 "20년 지원에도 북한 문제 제자리...새 접근 필요"(미국의 소리)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3. 11.

#### ■ 키타나 “北 국제고립 심화로 인권논의 기회 줄어”(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야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최근 북한의 고립이 심화하면서 인권 논의의 기회가 줄었다고 밝혔다.
-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최근의 정치적 사태와 무장화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립 심화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줄었다"고 말했다.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을 계기로 북한과 유엔 인권기구간 대화 시도들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 인권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 3. 13.

#### ■ 키타나, 유엔 HRC에 ‘북 인권 책임 추궁’ 촉구(자유아시아방송)

- 토마스 오헤야 키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유엔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의 소냐 비셰르코 전 유엔북한인권 조사위원은 책임자 처벌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되찾아 주고 법 절차에 기반을 둔, 모두가 존중 받는 하나된 사회를 형성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 또 다른 독립전문가단인 사라 후세인 변호사는 북한 국내법으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 3. 14.

#### ■ 키타나 특별보고관 “미국정부, 북한인권 문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미국의 소리)

- 토마스 오헤야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말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암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협조 촉구(미국의 소리)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 특히 북한 김정남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협조를 촉구함.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의 기회마저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말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됐다고 지적했음.
- 키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사건에 '국가 행위자'가 개입한 것이 수사 결과 확인된다면, 김정남은 초법적 처형(extrajudicial killing)의 피해자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 ■ 유엔비보고관 "중·러·미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압력·대화 병행해야"(연합뉴스)

- 일본 교도통신은 키타나 보고관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중국의 관여가 열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그는 "정체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뿐 아니라 대화도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북한당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미 국무부 북한인권 보고서(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3일 '2016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60년 넘게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하에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함.
-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는 1977년 이후 매년 발간되었으며 미국 외교정책, 또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00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것임.

2017. 3. 15.

■ **휴먼라이츠워치 "틸러슨 미 국무, 아시아 순방 중 북한인권 문제 제기해야" (연합뉴스)**

-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주 동아시아 방문 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촉구했음.
-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의 핵 호전성과 인권 기록이 서로 연계돼 있다며, 북한이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었다면 핵 계획을 추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이번 동아시아 방문 중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장해제를 원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3. 16.

■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유린 규탄 이어져(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음.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도발적 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 제네바주재 영국대표부의 줄리안 브레이트웨이트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일본의 나가오카 칸수케 제네바대표부 공사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판하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3년 전 지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참담한 인권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음.

2017. 3. 17.

■ **일·EU,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 새 유엔 결의안 제출(미국의 소리)**

-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음. 6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음.
-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음.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음.
- 이와 함께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음.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7. 3. 12.

### ■ 북한이탈주민 위한 재판 안내서 첫 발간(연합뉴스)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소송별 재판절차, 법률용어 등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도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사법제도 관련 자료들은 있었지만, 법원이 직접 안내서를 만든 건 처음임.
- 특히 북한과 큰 차이가 나는 형사재판과 관련해선 인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담겨있음. 아울러 북한의 법률용어 '탐오랑미'는 '형령', '빌리기계' 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등 남북 간 차이가 있는 법률용어 설명도 나와 있음.
- 이 책지는 법원 내에서 통일법제와 북한법제를 연구하는 법관들의 모임인 '통일 사법정책연구반'이 지난해 6월부터 연구한 결과의 산물임.

2017. 3. 13.

### ■ 미 국무부 “탈북 지원 동남아 단체에 보조금”(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난민 및 탈북자를 돕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무부의 심사를 통과한 단체는 연간 미화 20만 달러에서 최고 55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게 됨.
- 미국 정부는 국무부의 보조금과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을 통해 매년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인권단체, 학술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2017. 3. 14.

## ■ 새터민 절반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해”(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새터민 480명을 대상으로 벌인 '북한 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45.4%가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 출신지역 외에 새터민들이 차별을 느끼는 요인은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등 순이었음.
- 그러나 이처럼 차별을 겪은 새터민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권침해 차별에 대해 어떤 대처를 했는지 묻자 2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16.2%는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답함.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음.

## ■ 탈북민 10명 중 7명 태국 통해 입국…하나원 수료생 조사(연합뉴스)

- 통일부는 14일 작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태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이어 라오스와 중국 순이었다고 밝힘.
- 탈북 동기는 생활고(56%)가 가장 많았고, 자유에 대한 동경이 뒤를 이었음.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2~3년을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 등을 이유로 탈북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음.
-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만391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83명이 입국함.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초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었는데 3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음.

## ■ 탈북자 “한국은 인권 존중 받는 나라”(자유아시아방송)

- 탈북자들이 남한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남측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14일 발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남한을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평가했음.
- 특히 탈북자들은 남한 내 사회적 약자 가운데 장애인들의 인권이 가장 잘 존중받고있다고 응답했음. “남한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였음. 남측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애인들은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가운데

74%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7. 3. 15.

■ **“中 공안, 탈북민 돕던 한국인 목사 2명 긴급체포”(연합뉴스)**

-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중국 공안이 지난달 북·중 접경 지역 등에서 활동하며 탈북민을 돕던 한국인 목사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 정 대표는 이어 "체포된 목사들은 북한 인권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할 경우 그들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것을 우려해 탈북자들을 도운 것이라고 중국 공안의 조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 **홍용표 “北에 있는 국군포로 귀환위해 더 노력할 것”(연합뉴스)**

- 홍 장관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귀환 국군포로 간담회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사확인 안 된 분들도 있다"면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생사확인 과 귀환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홍 장관은 "정부는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 정치적 사안과 관계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에도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좀 더 전향적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 이어 "그러나 인륜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태도와 국군포로 자체를 부인하는 비인륜적 태도로 인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평화통일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5. 대북지원

2017. 3. 15.

■ **미 농무부 “대북제재 강화, 식량지원에도 영향”(미국의 소리)**

-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이 최근 ‘2015-2016년 북한 식용곡물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북한으로 반입되는 식량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2016년도에 북한이 외부에서 확보한 식량은 8만3천t이라고 밝힘. 그 중 인도주의적 지원은 2만7천t, 식량 수입은 5만6천t으로 중국에서 3만5천t, 우크라이나에서 1만 4천t, 러시아에서 7천t을 수입했다고 함.
-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상업적 식량 수입이 모두 줄어든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야기된 현상”이라고 분석했음.

2017. 3. 17.

■ **국무부 “20년 지원에도 북한 문제 제자리…새 접근 필요”(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는 20년 넘는 대북 지원에도 진전이 없는 북한 문제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6자회담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더욱 효과적 대북 조치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에 13억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북한 비핵화 노력을 20년간 해 왔지만 실패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음.